



케틀리 마스

미래의 폭정

만약 미래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가둔 감옥일 뿐이며, 강력한 힘을 지닌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서 오늘을 박탈하고 그 경이를 빼앗는 동안 모든 형태의 때 아닌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미래의 폭정을 끝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일은 매번, 처음으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중이다.”

제임스 볼드윈, 『악마는 제 일거리를 찾는다』(1976)

최고의 지성으로 미래의 상실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임무로 부여받은 남성과 여성들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지구라는 행성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일한 기업의 독보적인 힘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큰 주의와 겸손함이 필요하다. 심사에는 긴 시간이 걸렸고, 이는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결론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는 인초적 상상력의 복귀, 동물적 창조성에 따른 통치를 향한 희망과 투쟁을 나타낸다. 인류의 남성과 여성들이 만들어낸 이 야만적인 시간의 개념은 느리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파괴를 구실이 되기에, 우리는 미래를 표현할 새로운 시제를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폭정에 맞서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소리내어 말하는 모든 언어에서 미래시제의 사용이 48시간 동안 중단되었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대안을 찾아야 했다. 인류의 존재는 매일 오전 0시 1분에 재부팅된다. 지평선 위의 구름은 더 이상 날씨를 나타내지 않는다. 시간, 생명, 사람, 천연자원, 바다의 어류, 핵무기 따위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집착은 상실된 리비도처럼 사라지고 만다. 진동기의 배터리가 방전되고 만 것이다! 인공지능은 비(非)진화적인 단계로 들어선다. 망각된 하나의 개념. 지금은 원점에 갇혀 있다. 로봇들은 분해된 상태로 공장에 놓여 있다. 해체된 채로 멍하니 쳐다본다. 우리는 혈관에 진짜 피가 흐르기를,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지기를 원한다.



더는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들이 우리를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지쳐버렸다. 미래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멈추는 걸까? 미래가 그저 나쁜 기억으로만 남겨진다면 노화를 멈추게 될까? 이런! 비(非)미래에선 미래시제를 쓸 수가 없다. “미래는 몹쓸 기억에 불과하니 노화를 멈춘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고 죽을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미래시제의 동사가 우리를 무(無)로 정죄할 수도, 반대로 영원의 모든 것을 열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원이야말로 가능한 여러 미래가 축적된 것이 아닐까? 혹은 영원이란 마치 빛을 품은 엑토플라즈م과 같이 생명이 서서히 다가가는 틈 수십억 개가 겹쳐진 것이 지나지 않는 것 아닐까? 영원이란 그저 밤의 파수꾼들을 잠들게 만드는 기도일 뿐일까? 미래의 폭정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생명이 미래에 접합되지 않는 한, 생명이 독자적인 실체에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바로 지금, 현재시제로 죽는다면, 미래는 대체 무슨 소용인가? 여기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서로 악수를 할 때 나누게 되는 모든 생명체의 손바닥에 자리한 마법의 단어, 그 말의 소용돌이를 찾아내는 것이다. 남성의 몸 안에서 사는 여성을 푸르른 물로 만든 거대한 거품 방울 안에 둔다는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다. 개념의 진실성과 순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미지를 금지한 최고 지성의 남녀가 모인 자리에서는 오직 그들의 목소리만 들려왔기에, 이는 그리 중요치 않다.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기에, 미래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매일의 새로운 일출과 더불어 진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내일은 가장 큰 나무의 잎사귀를 간지럽히는 바람과 같이 단순한 개념이 되어야 하기에, 인간이 처한 조건에 담겨 있는 모순은 서로 다른 성(性)의 재통합에 녹아들게 될 것이다. 죽음은 과거를 향해 떨어진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과거를 향해. 그렇다고 한들,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거리가 멀다. 카운트 다운은 시작되었다. 48시간은 전례 없는 긴박감이 스며든 과거 또는 현재다. 더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축수에서 우리의 죽음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길 바라는 하나의 차원을 대체 어떻게 소리내어 말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선의와 뛰어난 지능을 가진 여성과 남성, 어린이들에게 48시간을 부여해 증오가 승리를 거두거나 지하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미래 조작자들의 복수심 없이도 미래를 되돌리고 존재를 구축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려 했다. 이 최종 기한이 지나면 가늠할 수 없으리만치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 백인, 흑인, 황인 우월주의자들의 망막에 박애주의적 집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전 세계의 인종 차별을 종식시킬 역병을 제거할 수는 없다. 지구상 80억 인구의 피부를 같은 색으로 물들이게 될 바이러스의 출현을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미드나잇블루색으로. 예보의 내용은 철새가 태양의 이동 경로를 1,000분의 1센티미터만큼 피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갈 거라고 예측한다. 또는 심지어 최고의 지능과 선의를 품은



여성과 남성들이 지하로부터 중독성 물질이 뿜어져 올라와 인간이 권력과 돈, 패권적 매혹을 폭력적으로 거부하게 만들 가능성을 예측할 것이다. 이러한 대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적색 경보 상태로 기다린다. 이는 그들의 은행 계좌에 든 한 푼 한 푼에 위협을 가한다. 48시간 동안 그들의 용돈 주머니에는 땡전한 푼 들어가지 않는다. 불안이 엄습한다.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신보다 더 강력한, 위험한 단어를 찾고 있다. 눈이 먼 단어, 그러나 빛을 품고 하루하루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는 단어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런 단어가 어딘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동굴의 벽이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영혼의 몸에 그려져 있을지 모른다. 수천 년 전에도 여성과 남성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십자가에 못박거나 그들의 이름을 딴 성당을 세워 슈퍼스타로 만들지는 않았다. 진실을 진부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단어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게 아닐까? 시간은 축적되는 것일까, 아니면 미래로부터 빼내야 하는 것일까? 남성의 기대 수명은 경도나



위도에 따라 마흔여섯 살에서 여든두 살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그런 점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미래에 관해 말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끝에 달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늘은 시간의 빛을 흡수하여 눈으로 사물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차원으로 뒤집어낸다. 어쩌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만약 하늘이 붉게 변한다면? 48시간 안에 하늘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푸른 미래를 집어삼킬, 차가운 불길의 바다와 같이 붉게 변한다면?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을 독점할 수 없다. 즉결 처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시즘이 종결된다는 걸 잠시 한 번만 상상해보라! 지평선이 코끝에 머무르기에 문법가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양철장이도 고민하고, 유치원의 아이들도 도전에 나선다.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건 이 점이다. 모든 사람에게겐 경쟁할 권리가 있다. 이 구원의 말을 가지고 비(非)미래의 문턱을 넘은 최초의 여성 혹은 남성은 새로운 여명을 정복한 영웅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성별이 규정되지 않은 생명체에게 12시간이 더 주어지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갇힌 미지의 자아를 불러내기 위해 시간 지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결되어야 할 핸디캡이다. 우리는 오고우와 보우다에게 간청했다. 우리는 향을 피웠다. 우리는 동서남북의 네 방위에 타이파를 끼얹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뱀인 단발라가 의식을 치르는 동안 동사(動詞)를 속삭였는데, 이 단어가 지닌 폭발적인 힘으로 북이 두 동강 나고 말았다. 그것은 공기 중으로 스며들어 미래의 폭정을 가슴에 품은 가장 깊은 우울에 맞서 싸우는 붉은 불꽃에 흡수되었다.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장벽에 맞서 도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버리거나 가만히 멈춰 있지 않다. 48시간은 두려움과 파괴를 담고 있어야만 하는 그 단어를 찾는데 그리 충분치 않은 시간이다. 세상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교사, 교수들은 워크숍과 세미나, 콜로키엄을 조직한다. 우리는 그 단어를, 미래시제의 접합을 종결지을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내야만 한다. 시간이 흘러가는지, 축적되는지, 거꾸로 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단어를. 가장 명철한 심령술사와 점술가들은 스스로 텔레파시 상태에 돌입한다. 글 쓰는 작가, 시인들과 어린아이들, 상상력과 광기를 손쉽게 다루는 이 두 집단은 서로 경쟁을 한다. 그들은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대의에 맞서는 적들은 미래의 촉수를 무력화하고 광장에서의 즉결 심판, 박테리아로 꾸민 전쟁과 기근, 갖가지 패권주의를 중단시키려는 인간의 어휘에는 알려지지 않은 모든 새로운 단어를 찾아 파괴하도록 프로그램된 광선이 대기중으로 쏘아 올려지게 했다. 지구상 80억 명의 여성, 남성, 어린아이들의 피부를 같은 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새로운 단어라니. 얼마나 위협적인가! 이 얼마나 전지구적인 재앙인가!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없이, 적의 상공에 드론을 띄우지 않고, 단 한 구의 시체도 갈갈이 찢기지 않고 승리를 거둔 몇 번째의 세계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마지막 날 오전 0시 1분이 되었다.



저자 소개

케틀리 마스는 포르토프랭스 출신의 프랑스어권 작가로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단편 소설, 시, 장편 소설을 발표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가장 최근 발표한 소설 『대주교의 천사』(L'Ange du patriarche, 2018)는 저주받은 아이티의 한 가족을 다룬 스릴러로, 아이티의 부두 문화와 현대적 기독교 문화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편집: 잉고 니어만

프랑스어 번역: 네이션 H. 디즈

영어 편집: 로산나 맥래플린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3, 케틀리 마스,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